## 아버지의 하늘

5·18 민중항쟁 30주기 추모시 – 전숙 시인

작은 가슴에 아버지의 영정을
꼭 끌어안았던 눈물의 아이가
아비의 강으로 깊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친 여정에 민들레
는 눈물들의 날개가 되고
찔레꽃은 상처들의 향기
가 되었습니다

바위가 몽돌을 짓눌러도 아무도
아프지 않는
침묵의 하늘은 아버지의 하늘이 아니었지요
허방에 빠진 이웃에게 마음 한 자락 툭 잘라내어
그 막막함을 받치고서야 저녁놀에 물들던 아버지

인권의 심장이 짓이겨지고
자유의 햇살이 포박당하고
민주의 뇌수에 총알이 박혀
'무등'에의 길은 무너지고 무너지고,
상처투성이 풀꽃들은 상처가 상처에게
내어준 마음 한 자락씩에 기대어
길을 멈추지 않는 것만이 오롯한 정의였지요
그리하여 가슴 가슴을 때리는 절규를
목숨으로 껴안고 걸어간 십자가의 길
그 뜨거운 희생의 용오름으로
역사의 정수리에 우뚝 부활한
아버지의 하늘은 나라와 지구촌을
평화의 꽃밭으로 가꾸어갈 '민주경전'이지요

꺾이지 않는 푸르름으로
만삭의 통꽃 채 스러져버린 미애님은 머리글이 되고
풀꽃들이 깨금발로 들어올린 주먹밥은 꼬리글이 되어
어떤 지독한 어둠도 무릎을 꿇고야 말
새하늘 새뜸의 꽃으로 피어났지요

노랑장다리꽃에 날아든 붉은점모시나비
양볼이 터지고 뱃구레가 불룩해도
어느 누구도 눈 흘기지 않는
아버지의 하늘,
우리 모두의 아리따운 오월입니다

오늘 나는 비로소 열린 아비의 귀로,
내 아이의 고사리 마음을 부여안고
30 년 전 작은 가슴에 묻었던
나의 어린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 '용서·화해' 1000개의 희망 리본

## 5·18 묘지 참배객들 '민주의 문' 광장 나무에 매달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의 희생은 보석보다 더 빛이 납니다. 이제 모두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앞장섭시다."

5·18민중항쟁 30주년을 앞두고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객들이 자신의 소망을 담은 리본을 묘지 주변에 매달고 있다. '민주의 문' 앞 광장 나무에 내걸린 '추모리본' 코너는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의 모토인 '용서와 화해·전국화'를 바라는 추모객들의 희망과 염원을 담기 위해 설치됐다.

추모객들은 지난 13일 현재 모두 1000여 개의 빨강·노랑·흰색 리본에 추모 메시지를 적어 느티나무에 내걸린 줄에 정성스레 매달았다. 리본을 매달아 놓은 추모객들의 연령과 거주지는 각기 달랐지만 소망은 한결같았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온 국민이 5월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것.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빕니다', '값진 희생에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5월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추모객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정에 큰 획을 그은 5월 항쟁의 큰 뜻에 숙연한 마음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을 알게 됐다는 외국인들의 메시지도 눈에 띈다. '광주 사람들은 위대하다', '숭고한 넋이 바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주의 탄생 과정을 보고 간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편히 지내는 것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껏 5·18 민중항쟁을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등 5월의 참뜻을 알려줘 고맙다는 메시지도 추모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5·18 표지판 꽃장식**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입구의 5·18사적지 표지판이 5·18민중항쟁 3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장미꽃으로 장식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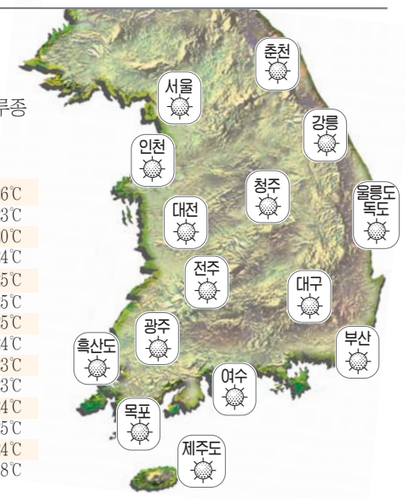
## 오늘 날씨

해뜸 05시 30분 해짐 19시 28분 달뜸 05시 09분 달짐 19시 57분

**장미 선물 어때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루종일 맑겠다.

| | | |
|---|---|---|
| 광 주 | 맑음 | 10/26℃ |
| 목 포 | 맑음 | 9/23℃ |
| 여 수 | 맑음 | 12/20℃ |
| 완 도 | 맑음 | 10/24℃ |
| 구 례 | 맑음 | 7/25℃ |
| 해 남 | 맑음 | 7/25℃ |
| 장 흥 | 맑음 | 7/25℃ |
| 고 흥 | 맑음 | 8/24℃ |
| 순 천 | 맑음 | 11/23℃ |
| 영 광 | 맑음 | 8/23℃ |
| 진 도 | 맑음 | 8/24℃ |
| 전 주 | 맑음 | 9/25℃ |
| 남 원 | 맑음 | 5/24℃ |
| 흑산도 | 맑음 | 10/18℃ |




| 〈오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북동~동 | 0.5~0.5m |
| 먼바다 | 북동~동 | 0.5~1.0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동~동 | 0.5~1.0m |
| 먼바다 | 북동~동 | 1.0~1.5m |

| 자외선지수 | 식중독지수 | 황사지수 |
|---|---|---|
| 높음 | 주의 | 낮음 |

| 〈오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북동~동 | 0.5~0.5m |
| 먼바다 | 북동~동 | 0.5~1.0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동~동 | 0.5~1.0m |
| 먼바다 | 북동~동 | 1.0~1.5m |

| | 밀물 | 썰물 |
|---|---|---|
| 목포 | 02:19 14:15 | 07:31 19:30 |
| 여수 | 08:58 21:33 | 02:56 14:58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15(토) | 16(일) | 17(월) | 18(화) | 19(수) | 20(목)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12/26 | 14/22 | 15/24 | 17/23 | 17/22 | 16/26 |

# "죽어서라도 광주에 묻히고파"

## 5·18때 금남로 누비며 '참상' 세계에 알린 돌링거씨

### 광주 방문 기념식 참석

5·18민중항쟁 당시 광주에서 통역을 자청해 외신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돕고 피해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미국인 데이비드 돌링거(David L. Dolinger·57·사진)씨가 5·18 30주년을 맞아 광주를 다시 방문한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데이비드씨가 지난 11일 입국, 16일에 광주를 방문해 5·18전야제와 기념식에 참석한 후 21일에 출국한다고 13일 밝혔다.

'임대운'이라는 한국이름도 가진 데이비드씨는 1978년 미국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일원으로 한국에 들어와 5·18이 발생하기 전까지 2년간 영암보건소에서 결핵통제 요원으로 활동했다.

항쟁 당시 주말을 앞두고 광주로 올라온 그는 5월16일이후 수일간 광주 상황을 목격했다. 1980년 5월 24일 밤에는 시민군과 함께 도청에 머무르며 AFKN(주한미군방송) 라디오 방송이 보도하는 계엄군의 정황을 시민군에게 전하기도 했다. 또한 동료 봉사단원 2명과 함께 전남대 병원과 금남로 길거리를 누비며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인터뷰해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다.

데이비드씨는 지난 2005년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때와 2008년 이메일로 5·18 기념재단에 "(사후)국립 5·18 민주묘지에 묻히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광주시는 "국가 유공자 신분이 아닌 이상 국립5·18 민주묘지에 안장되긴 힘들지만 구 묘역 안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5·18은 아직 미완성 "

## 기념재단 '광주문제 해결 위한 5원칙 현황보고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된 '5·18 민중항쟁'이 발발 30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미완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5·18기념재단은 13일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 현황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는 안종철(55) 5·18 기념재단 전문위원·한양대 이영재(40)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전남대 유경남(30) 연구원 등 3명이 참여했다.

이 보고서에서 '진상규명'은 가해자에 대한 미공개 자료가 많아 아직도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한계가 있으며, '책임자처벌'은 명확한 가해자의 범위 등을 구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은 법적·물질적 보상은 이뤄졌지만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하지 않은 점, '기념사업'은 기존에 진행된 사업에 대한 리모델링 및 적극적 활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